

# 승고와 공감각: 하늘공원, 선유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의 미학적 특성

우연주\*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I. 머리말

최근 공원은 공공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사회·문화적 쟁점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공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있어 공원의 미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 혹은 경치를 감상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픽취레스크의 시각적·관조적 감상에서 벗어나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통한 공원의 경험은 조경설계의 미학적 논의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 그러한 미적인 측면이 수행하는 환경 윤리적 실천<sup>1)</sup>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Meyer, 2008). 또한 조경설계 작품으로서 공원은 설계 과정과 내용, 또 공간의 구성 측면에 있어 그러한 미학적 논의를 통해 분석과 비평의 내용을 살찌워 가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 공원에서 발견되는 조경 설계의 미학적 특성들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 조성된 공원들 중 뚜렷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특유의 공간적 분위기를 통한 미적 체험의 장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공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오며 다각도의 조명을 받아온 하늘공원, 선유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이 그 사례이다.

이에 앞서, 시각 중심의 미적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학적 쟁점을 초대하고 있는 현대 조경설계의 미적 특성, 또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공원의 사례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동시대 한국 조경설계에서 파악되는 미학적 특성들을 위의 세 공원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 II. 경험의 미학을 통한 공원의 감상

환경적 가치를 설계로 구현함에 있어서 최근 일군의 조경가들은 경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넘어 경험을 구축하고 자연을 연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즉 경관을 가시적인 것 이상으

로 만들며 인간이 환경에 미적으로 참여(engagement)하는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적 미적 경험의 주장은 아놀드 벌리언트(Arnold Berleant)로 대표되는 환경미학의 중심적인 내용으로(Berleant, 1992), 조경설계의 미적 논의와 많은 부분 교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시각' 중심의 '관조적' 미적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학적 논의를 통해 환경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러한 시도는, 조경설계의 미적 내용의 측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로런스 헬프린(Lawrence Halprin)의 작품은 그러한 1980~90년대의 경향을 통해 재조명된 조경 설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진다(Meyer, 2001).

참여 미학을 바탕으로 대상의 미학보다는 경험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 조경 설계에서, 환경적 가치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자연과 생태, 사회 문화적 맥락의 형상화를 통한 조경 설계

물과 바람과 빛, 그리고 역사와 시간의 맥락을 포함한 미적 경험의 설계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물의 과정을 형상화 한 마이클 반 발켄버그(Michael Van Valkenburgh)의 밀 레이스 공원(Mill Race Park), 바람의 힘을 표현한 조지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의 캔들스틱파크(Candlestick Point Cultural Park), 역사와 시간의 맥락을 개념화 한 사우스 코브(South Cove)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는 대상지의 자연적 과정 혹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지역 혹은 장소적 특수성과 깊이 관련된다(Meyer, 2001).

이러한 공원 작품들은 대상지의 자연적 과정에 관한 오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장소 특수성이 반영된 경관의 경험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으로서의 경관이 아닌,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해석하는 조경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픽취레스크의 전통에서 벗어나 공감각(synaesthesia)을 통한 자연 환경의 미적 경험의 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2. 대지 예술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조경 설계의 장소 현상학적 측면

대지 예술의 의의는 작품을 통해 자연의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이면을 겉으로 드러냈다는 데 있다. 특히 대상화된 정태적 자연을 거부하고 자연의 역동성과 파괴적인 힘을 가시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의 번개치는 들판(The Lighting Field)이 있다(배정환, 2004).

조경 설계에서는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지 하그리브스의 작품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빅스비파크(Byxbee Park)가 대표적이다. 야생의 잡초만이 무성한 이곳의 설계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땅의 역사와 성질, 즉 장소적 특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그리브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지예술의 내용은 '자연의 형태와 과정을 이용한 조경 설계'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구축된 자연 환경과의 신체적 접촉, 감각적 교류를 통해 미적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환경미학과 교점을 지닌다(배정환, 2004).

이러한 설계는 어떠한 추상적 백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가는 부지의 지형과 기하학적 형태에서 드러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과정을 해석하고 표현하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 조경 설계의 새로운 유형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계 방식은 장소를 경험하는 방문객들에게 잘 꾸며진, 혹은 잘 만들어진 정태적 자연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대지의 살아 숨 쉬는 역동성을 신체적,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3. 폐허와 숭고의 미학

동시대 조경과 미학-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과 정의에 관한 것으로서의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의 존재 여부에 대해 먼저 물음표가 던져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식, 조화,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적 관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미적 경험을 찾으려 한다면 조경과 미학의 교점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버크와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의 '숭고(sublime)' 논의는, 동시대 조경설계에 있어 '아름다움'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감각적 특질을 지닌 공간의 미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배정환, 2005). 물론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 두루 등장하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을 조경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폐허의 미학, 혹은 광활한 풍경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힘과 관련한 숭고의 논의를 현대 조경 설계의 감상적 차원과 연관시키는 부분들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조경진, 2006). 형식 혹은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어 온 전통의 서구 미학으로는 동시대 조

경설계-빅스비파크, 뒤스부르크노드파크, 쇼우부르흐플레인, 다운스뷰파크, 프레쉬킬스 등-의 미적 차원을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작품들의 미적 체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곧 '숭고'의 미학일 수 있다.

## III. 세 개의 공원을 통해 본 조경설계의 미학적 특성

### 1. 하늘공원

이름처럼 '하늘'을 지닌 공원, 하늘공원은 마주한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초지로 뒤덮인 광활한 초지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숭고의 미'와 맞닿아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초지에서 느껴지는 "무질서하고 비형식적이며 불명료한, 그리고 거대하고 무한한" 풍경의 특질을 통해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버크(Edmund Burke)가 내린 이러한 숭고의 미적 감상의 정의를 하늘공원에 대입하는 것과 유사하게 린다 폴락(Linda Pollak)은 프레쉬킬스(Fresh Kills)매립지 공원과 설계경기와 숭고를 연관 지은 바 있다(Pollak, 2002).

프레쉬킬스와 마찬가지로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중에서도 가장 토양이 척박한 지역이었던 하늘공원 부지의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숭고의 감각적 측면은 더욱 극대화된다. 우리가 밟고 서있는 이 땅이 과거 쓰레기 더미였으며 지금 이 아래, 그것들이 산화를 일으키며 매탄 가스를 내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이 공원을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 혹은 '멋진 경치'로만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형식적 조화의 탁월함보다는 내용적 관계의 건강함에 주목하고 있는 현대 조경의 미학적 층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장치를 '숭고'에서 발견할 수 있다(배정환, 2005)"는 주장처럼, 우리는 장소의 맥락을 떠올리며 감각적 경험이 극대화됨을 느낀다.

공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체험하는 공간의 경험은 또 다른 미학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역새와 갈대 사이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는 대상의 감각적 표면(sensory surface)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한다. 또 아놀드 벌리언트의 환경미학에서 정의된 공감각적 차원의 경험과 같이, 하늘공원의 역사 숲 사이에서 우리는 시각 이외의 청각, 촉각, 후각, 근운동감각 등 다양한 감각들이 동시에 작용함을 느낀다. 이는 우리가 역새와 하늘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통일된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 혹은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감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선유도공원

선유도공원은 관조적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풍경 혹은 경치

를 제공하는 지금까지의 공원과 전혀 다른 감각적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던 선유봉에서 일제시대 골짜기 채취장으로, 그리고 정수장으로, 이제는 공원으로 탈바꿈한 선유도의 긴 역사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공원에 남겨진 녹슨 구조물과 허물어진 벽, 녹슨 잔해들은 장소의 기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 차원은 기존의 아름다움 혹은 조형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유도공원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감각적 차원은 폐허에서 느껴지는 시공간의 체험이 가져다주는 '승고함'으로 이해된다(배정환, 2005). 이러한 승고 개념의 공간적 체험은 산업 폐허의 잔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공원이 전해주는 시간의 무게와 풍성한 이야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 공원은 폐허에서 느낄 수 있는 허무함, 고독함, 쓸쓸함 이상의 복합적 감상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한 폐허의 특질이 자아내는 우울한 풍경의 감각적 분위기는 선유도공원의 특징적 요소로 자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장소의 특수성'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란 "장소 자체로 보여지는 대상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지각된 대상이 아닌 마음에 의해 변형된 대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관념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석환과 황기원, 1997)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과 시간의 지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선유도공원은 '시간과 기억'의 차원에서 장소의 맥락이 잘 표현된 장소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측면이 공원을 체험하는 이용자들의 공감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된다는 점에서 선유도 공원이 지니는 미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는 이곳에서 '조경설계'는 조화로운 형식과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용자로 하여금 '감각적 체험'을 하도록 해주는 매개체적 장소로 작용한다.

### 3.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계획에서는 이 공원을 "모래섬의 서정성과 물가의 감성적인 기억을 가지는 장소로 계획하고자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설계 전략으로는 물과의 경계, 그리고 도시와의 경계를 허물 것을 제안하며 역동적인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장소로 공원을 계획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김도경 등, 2008).

하지만 조성된 공간의 모습은 서정적이거나 감성적이기보다 다소 조형적이고 인위적이다. 독특한 형태의 퍼골라와 평면으로부터 솟아 있는 입체적 구조물의 분수, 그리고 반듯한 사각형을 차곡차곡 놓아둔 캐스캐이드 역시 기하학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조형미가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미학적 측면은 체험 혹은 감각을 통한 경험보다는 시각적이며 관조적 대상으로서 공간을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

또 한강을 형상화 한, 물이 흐르는 구조물에는 '마포대교', '한남대교', '노들섬' 등 한강에 위치한 구조물 혹은 특정 지역의 지명이 차례로 적혀 있는데, '피아노 강'으로 이름 지어진 이 구조물은 왜 이것이 '피아노'여야 하는지, 한강이 지니는 다양한 차원의 특징을 일차원적 표현으로 전달해야 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역동적이거나 혹은 잔잔한 물의 흐름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다이애나 메모리얼의 분수(Diana, Princess of Wales Memorial Fountain)와 비교했을 때 더욱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조성된 수공간에서 이용자들은 직접적 체험을 통해 공감각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연못이나 분수는 더 이상 시각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구획된 파인 공간 아래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까지 마련해 놓은 것을 보면, 물이 차있는 이 공간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간이다. 더욱이 물이 뿜어지는 부분으로부터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의 얇은 수심, 그리고 물과 물이 아닌 곳의 애매한 경계를 통해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며 이용자들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수공간은 한강까지 이어진다. 흐르고 떨어지며 아래로 내려간 물은 한강의 물과 만난다. 공원과 한강의 경계가 사라지는 부분이 감각적으로 둘을 이어준다. 이 물 위로 살짝 올라온 징검다리 구조물 위를 건너보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며 흐르는 캐스캐이드 옆을 오르내리기도 하며, 이용객은 한강의 정취를 느끼며 신체적 경험에 빠진다.

무엇보다도 여의도한강공원은 한강으로부터 오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가 그대로 활용되는 위치적 장점을 가진 장소이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의 맥락을 활용하기 위한 수공간에서의 몇몇 장치들을 통해 공원의 미적 감상이 풍부해지고 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공원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미적 특질들, 그리고 그러한 특질들과 관련된 미학적 쟁점들은 조경설계가 조화로운 형식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용자로 하여금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매체로서 인식되도록 한다. 또한 그러한 매체로서의 공원의 경험에 있어 이용자는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며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공간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

하늘공원에서 나타나는 광활함과 대지의 맥락이 표현된 경관에서 드러나는 승고함, 장소 특수성이 잘 발현된 선유도공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폐허의 승고함, 그리고 그곳 특유의 감각적 분위기, 또 공감각적 체험을 통해 완성되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미적 감상은 조경설계의 새로운 미학적 쟁점을 현시하고 있다.

---

주 1. 마이어(Meyer, 2008)는 미적으로 아름다운 외관이 환경에의 관심을 유도하며 이것을 하나의 지속 가능한 공각적 실천이라고 제안한다.

### 인용문헌

1. 김도경, 최원만, 홍형순(2008)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6(2): 14-23.
2. 배정환(1998) 조경이론으로서의 환경미학. 한국조경학회지 25(4): 89-106.
3. 배정환(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도서출판 조경.
4. 배정환(2005) 현대 조경설계와 '승고'의 미학.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논문 발표회 논문집: 45-48.
5. 배정환(2007) 시간의 정원, 발견의 디자인: 선유도 공원이 전하는 말.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파주: 도서출판 조경.
6. 이석환,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69-185.
7. 조경진(2006) 페허의 미학. LAnD: 조경·미학·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190-199.
8. Berleant, A.(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9. Meyer, E.(2001) The post-earth c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ichael Cona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187-244.
10. Meyer, E.(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spring 2008: 6-23.
11. Pollak, L.(2002) Sublime Matters: Fresh Kills. Praxis 4: 58-63.
12. Saito, Y.(2007)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